



L'ORÉAL 이후의 도서관

L'ORÉAL THROUGH GILLETTE · 11

L'Oréal에서의 경험으로 나는 내가 Gillette라는 틀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 시장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내가 회사라는 울타리 밖에 놓이게 된다면,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것이었다.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점심을 하자고 하셨다. 집이 아니라 밖에서 만나자고, 마치 일 때문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함께하는 가장 좋은 시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다시 찾는 시간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그립다.

아버지는 이 직업적 경험 이후 내 기분이 어떨지 궁금해하셨다. 세부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신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늘 말수가 적은 분이셨고, 묻지 않으셨고, 그저 듣고 미소 지으셨다.

나는 아버지께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학교나 대학을 통해서가 아니라, 도서관에 가서 날마다 책이 하는 말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교양은 경험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역사는 언제나 되풀이된다는 걸 기억해라. 같은 순환이 거듭되지. 한 번 읽고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말은 적고, 과장은 없었다. 그것은 오늘의 나의 일부이기도 하다. 아이러니는 어머니에게서 받았다. 사실은 외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기질이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말하는 상대에 맞춰 내 언어를 다듬어야 했다. 어려운 단어는 흔히 교양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

려 자기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무식한 바보처럼 들리게 할 뿐이다.

나는 밀라노에 가서 Kaiser 경영 과정에 등록할까 생각했지만, 그들은 376만 리라를 요구했고, 강의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 본 뒤에도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지식에 나 자신을 시험해 보고 싶었고, 할 일을 찾았다. 머천다이저 과정. 내가 이미 실제로 하고 있던 일을 이론에 뿌리내리게 해서 다듬고 개선할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일주일에 스무 시간 수업에 65만 리라를 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음 회에 이야기하겠다.

한 가지 생각만. 그때 나는 이미 내 안의 무언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아니면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느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 준 것은 나중의 글쓰기였다.

나는 아무도 존재하리라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누군가였다.

Ferdinando